

대졸여성, 전문직을 겨냥하라

취업률이 저조한 대졸여성에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취업의 길이 아직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발전과 사회의 다기화에 힘입어 새로운 전문직종과 미개척 분야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 꾸준히 노력하면 취업의 문이 의외로 쉽게 열린다.

서울YWCA는 25일 취업지도 세미나를 열고 대졸 여성의 취업을 위해 표경희(이화여대 직업보도실장), 홍용수(한국 리쿠르트 사장), 김준산(대우 인사과)씨 등으로부터 이같은 조언을 들었다.

88년도 2월 대졸 남녀의 취업률은 46%. 16만여명의 대졸자 가운데 7만4천여명만이 일자리를 얻은 것이다. 그중 남자가 74%를 차지, 여학생은 겨우 26%에 그치고 있다.

한편 9개 여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평균 33.7%로서 남성 취업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중 순수 취업은 27.5%(나머지는 진학)뿐으로 1백명의 여학생중 66.3명은 취업을 희망하는데도 실업자로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실정에 대해 표경희 실장은 "직종에 대한 종래의 인식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분야를 살펴 봐야만 취업의 문이 열린다"고 조언했다.

최근 각 기업체나 기관에서의 추천의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직종에 대졸여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급학교의 교사, 보조, 강사직=사립학교의 영어·컴퓨터강사의 추천의뢰가 많은 편이다. 교사는 사범대를 나오지 않았어도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중 정부 각 부처의 장·차관급 그리고 기관장의 비서직=비서직에 관한 인식부족으로 본인 특히 부모의 반대가 많아 추천에 응하지 않는 수가 많으나 이제 비서직의 업무가 종

래와 크게 달라졌다. 비서직은 크게 일반비서와 전문비서로 나뉘어지는데 후자의 경우 영어회화는 물론 속기기능까지 요구되는 전문직이다. 종래에는 주로 외국기관과의 의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국내기관의 수요가 늘었다.

△공채를 하지 않는 중소기업 쪽이 학교 쪽에 추천의뢰하는 직

서울에도 점포가 늘고 있다.

△언론계=전적으로 공채를 하고 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우선 그 주변 직종인 모니터, 스크립터 등 아르바이트 업종에 종사, 실력을 쌓는 것도 한가지 방안.

△외국항공사, 호텔=항공사는 스튜어디스의 경우 공채하지만 비서직, 티키팅 등 업무가 다양

취업은 일조일석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히 노력하고 정확한 정보를 갖는 것이 중요하나 그것보다도 더 선행돼야 하는 것이 전공선택이다.

홍용수 사장은 "진로문제는 10년 후의 직업세계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파가 중요한 것이지 학교관관에 신경 쓸 것 없다"고 강조, 10년 후엔 정보·



전공과목과 병행하여 몇가지 자격증을 구비하면 대졸여성의 취직자리엔 정보·서비스분야 등 개발할 여지가 많다.

인문·사무직 선호관념 버리고

비서직·영업직도 도전해볼만

중=비서직, 관리직, 전산직, 번역, 설계, 자료조사, 기획조사, 디자인, 사서직, 카피라이터, 사내방송 아나운서, 영업직 등 종류가 다양하다. 비서직과 함께 영업직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무조건 보험세일즈를 연상하고 고려해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대리점관리도 영업직이다. 이 직종은 임금에 남녀차별이 없고 능력에 따라 수당이 붙는 게 장점이다.

△금융기관=시중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투자금융, 투자신탁, 외국은행 등에 폭넓게 눈을 돌려 보자. 특히 외국은행과 증권사의 경우 지방으로 확산되고

하다.

구인광고가 없더라도 항공사의 사무실(대개 특급호텔)에 영문이력서를 제출해 놓으면 응시 기회가 온다. 호텔의 경우 우수한 어학실력이 요구된다. 비서직, 리셉션리스트, 홍보 등 분야가 넓다. 6개 특급호텔의 경우 초봉이 50만원선에 보너스 4백% 정도.

△국제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므로 번역, 사무, 비서, 텔레크소퍼레이터, 리셉션리스트 등의 추천의뢰가 많다.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공채도 하지 않으므로 학교의 직업보도실 등을 이용하면 쉽다.

서비스산업이 대종을 이룰 것이므로 인문계와 사무직 선호관념을 버리고 전문직종으로 진출하라고 당부했다. 따라서 전공과목과 병행, 자격증(현재 노동부 발급 1천여종)을 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한국에는 1만4백50여종, 미국에는 3만여종의 직업이 있으며 몇 년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 직종이 생긴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

또 직업선택은 반드시 적성에 맞아야 하며 평생직이 바람직하다. 이같은 목표가 설정되면 꾸준히 노력, 능력을 키우면서 단기승부에 매달리지 말고 과욕을 부리지 말라고 홍씨는 당부했다.